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0.1~2015.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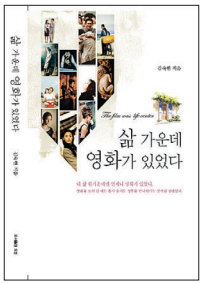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용현의 휴휴명당	조용현	불광출판사	6	무아유희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2	너무멀리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지채종출판사)		7	모든 삶이다, 나	탁한/김성희	아이넷북스
3	금강경을읽는즐거움	임강스님	민족사	8	신심명(물류개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4	정신과 의사의 재원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9	선한마음(나를바꾸고세상을바꾼다)	오겐판도제	지영사
5	신묘장구대라니기도법	유원스님/김현준	효림	10	시끄러운원숭이집재우기	애반비해/개산	나무옆의자



영화는 세대 초월한 영원한 古典... 꿈꾸는 내밀한 침상

철북이와 법운스님의 '자기 이름 찾기'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살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
김숙현 지음
오션 퍼블
1만 7천원

다양한 글쓰기로 필명을 날리고 있는 김숙현 희곡 작가(오른쪽 사진)가 영화관련 에세이 저서를 한권 펴냈다. 제목은 <살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이다. 100여 편의 영화에 대한 감동과 설렘 등 감상평이 담겨진 이 책은 저자의 필력과 사고를 간파할 수 있게끔 만든다. 특히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으면서도 영화를 텍스트로 한 이 책은 영화 소재 저술에 대한 김 작가의 해박한 식견과 테크닉을 읽게 해준다. 이는 영화에 대한 그의 애정 및 활동과 무관치 않다.

김 작가는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BIFF) 출판 당시 부산일보사 논설위원으로서 BIFF의 자문위원직을 맡아 오를까지 20년간 '영화의 바다' 현장을 지킨 명실공히 비프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어도 항상 영화 관련 현장을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았다.

<살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에는 언론인이자 인문학도인 김 작가가 그의 눈을 스쳐간 수천여 편의 영화 가운데 가려 뽑은 영화의 즐거움과 명장면, 그의 인문학적 소양 등이 특유의 소담스런 문체에 알맞게 버무려져 있다. 또한 삶의 지표 등을 영화 캐릭터의 회로에 띠에 비춰 날카롭게 전한다.

저자의 영화사랑은 여중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에 대한 첫 사랑은 바로 로렌스 올리비에 주연의 <애정>을 서울 마포의 한 영화관에서 본 이후부터다. 저자는 이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영화바람이 단단히 들었고 고백한다. 학생시절 영화광들에게 한두 번쯤 볼는 수만의 프리프가 김 작가에게도 있었다. 서울 명동극장서 성인영화인 다니엘 디류 주연의 <보바리 부인>

보러 갔다가 감시관 선생님에게 들려 '정학' 위기를 겪었다. 이쯤 되면 김 작가에게도 영화광이란 칭호가 무리는 아닐 듯 하다. 이 소녀 영화광에게겐 슬플때도 한편의 영화는 큰 위트가 되었다. 마치 영화 시나미천국의 토도가 그랬던 것처럼. 대입시험에 낙방했을 때 김 작가는 마리아 메르쿠리와 안소니파킨스 주연의 <죽어도좋아>를 보면서 울었다. 김 작가는 이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영화필름이 몇바퀴 회전한 뒤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슬픔이 까맣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가기전 압담함과는 또다른 차원의 미래가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배앓이 생긴 탓일까요?"

김 작가에게 영화는 팍팍한 현실이 주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해방구이며 소심한 자에게 허용된 무한대의 일탈과 환락의 공간이었다. 그 환상과 기적의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할 사랑이 없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도 없었다. 그 세계에서는 무모한 싸움에 거침없이 뛰어든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최악의 나락에서도 불사초처럼 소생하는 대단한 존재가 됐다.

김 작가는 "어차피 인생의 10분의 몇은 이루지 못한,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들로 이뤄졌으니 영화세계 안에서 꿈꾸었던 세상을 갖겠 구하해 볼까"라며 "영화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독서로 비유하자면 김 작가에게 학생시절이 영화에 대한 다독의 시기였다면 앞서 밝힌 것처럼 BIFF 자문위원직을 맡고 난 이후를 본격적인 영화 감상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즉 그때부터 김 작가는 영화의 정독을 한 셈이다. 해마다 3백여 편의 세계 각국 작품들이 지구촌 각지에서 몰려오니 20년 동안 김 작가가 감상한 편수를 계산하면 어림잡아 6천 편은 족히 넘을 듯 하다. 슬하에 김 작가의 눈에서 명멸한 그 많은 필름 가운데 뽑혀진 이 책의 영화들을 살펴보니 저자의 취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주인공이 추구하는 진실과 그의 낱말의 행위가 과연 인간의 로서 가치를 지닌 것인가 아닌가 등 인문학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BIFF 위원 시절때 본적 영화감상 100여 편 영화해설과 칼럼 등 묶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수십 편의 희곡과 수천 편의 칼럼 에세이를 집필한 50년 문학인생 동안 저자가 즐기며 추구한 테마 역시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자긍심, 진실을 향한 의지와 그 뿌리가 인문학적 통찰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제 책을 들여다 보자. 책은 비프서만만 영화, 인문학적 탐색과 성찰, 스며드는 사랑, 금기의 사랑, 예술혼을 위하여, 존재의 환상과 실제 사이, 천개의 눈에 비친 삶의 여적 등으로 챕터를 나눠 사람의 본질, 예술 창작의 비의(秘意), 자유혼을 잃지 않은 인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과 통찰을 보여준다.

총 6부로 나뉜진 구성에서 김 작가는 저널리즘 비평의 오브제를 넘어 '비프에서 만난 영화' '인문학적 탐색과 성찰' '스며드는 사랑, 금기의 사랑' '예술혼을 위하여' '존재의 환상과 실제 사이' '천 개의 눈에 비친 삶의 여적' 등으로 책을 채웠다. 앞서 다섯 챕터는 영화 관련 이야기고, 마지막 장은 칼럼과 단상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책을 좀더 분할해서 소개하자면 우선 1부 'BIFF에서 만난 영화' 편에서는 중국 일본 스페인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의 감독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제시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상적 드라마의 진정성에 대해 일러준다.

5부 '존재의 환상과 실제 사이'에서는 '국제시장' '타인의 삶' 등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를 보여주며 등장하는 주인공의 회로애락과 인간의 삶을 비추준다.

글 곧 김숙현은 이 책속에서 영화 장면도 몇 개 기억시킨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기자들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는다. 영화 버퍼 김숙현이 이끌고 가는 100여 편의 영화는 그래서 소설처럼 끌리고 시처럼 담백하며 간결하다. 영화를 직접 보지 않았어도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눈앞에 스크린 속 장면이 펼쳐지는 이유다.

얇아온 지식명어러로 포장하지도 너무 많은 인터넷 식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으면서, 음식으로 치면 딱 알맞은 맛의 요리. 김 작가의 글은 평범을 가하지지만 생각과 사고를 조출시키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 그래서 그의 글들이 불교계를 비롯해 여러매체서 관심을 두는 이유인 것 같다.

아무튼 이 책은 재미있게 부담 없이 교양과 인문학을 챙길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풍부한 감성과 낭만도 한층 끌어 올려주는 훌륭한 인문교양서다. 또한 우리가 흔히 영화관서 보지 못했던 영화들도 다수 소개돼 있어 영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읽는 재미가 쏠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영화계의 대부인 김동호 BIFF 명예집행위원장의 추천사는 이 책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낙관과도 같다. 김 위원장은 "작가인 김숙현 위원의 글은 쉽고 간명(簡明)하다. 그러면 서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움이 도사리고 있다. 행간 도처에 인문학적인 해석과 비유가 곁들여 있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의 풍부한 독서량과 현장체험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양철북
이산하 지음
양철북출판사 펴냄
1만 1천원

양철북은 책의 주인공 이름이다. 열아홉 살, 고 3 문학소년이다. 철북이는 방학 때마다 부산을 떠나 경산의 깊은 산속에 있는 수구암에 들어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곤 했다. 이 절의 주지 스님이 외할머니기 때문이다. 1978년 여름 방학 이곳에서 철북이는 서른 살 중반의 법운 스님을 처음 만난다. 도보고행 중 수구암에 스며든 법운 스님은 묵언 정진을 마친 뒤 생면부지의 철북이와 만행 비슷한 여행을 떠난다. 청도 운문사-법정 스님의 불일암-오대산 적멸보궁 등으로 이어지는 여행은 한 달 반 동안 계속된다. 소설 <양철북>은 이 여행 이야기다. 영화로 치면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시인 이산하가 고교시절에 직접 겪은 것이다. 곧, 이산하가 양철북인 셈이다(법운스님도 실존인물이다).

평범한 여행기가 특별히 다가오는 까닭은, 짧은 기간에 두 사람이 커다란 성장 이야기를 만들어기 때문이다. 소설서 드러난 법운 스님의 여행 목적은 뚜렷하다. 거어이 깨달음에 이르코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는 수구암에 오기 전 이미 도보 고행승이었고, 철북이와 여행 끝에 도달한 것도 '형사경(화엄경을 형서로 쓰는 것)'이라는 수행이다. 여행을 통해 그 몸부림이 더욱 깊어지겠 것이다. 반면 철북이의 여행은 '멋모르고 따라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평범한 문학소년인 철북이는 여행이 끝난 뒤 "팬으로 힘껏 북을 치는" 시인이 되고자 한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변태가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뒤 두 사람은 나름의 고행을 보낸 뒤 "절대고독의 중심에 우뚝 선 자, 그가 수도자요 작가"라는 공통의 깨달음에 이른다. 이문재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양철북>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한마디로 정돈하자면, 바로 '자기 이름 찾기'이다. 예컨대 법운(法雲)이라는 법명은 얼마나 엄청난가. 구름처럼 자유로운 진리, 자기 밖에서 제 이름과 하나 되려던 법운은 자기 몸을 통해(형사경) 깨달음을 이루코자 한다. 양철북도 다르지 않다. 이미 권터 그라스로 '가짜 아버지(혹은 스승)'를 버린 철북이는 어느새 법운스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는다. 오대산서 법운과 헤어지는 장

면은, 곧 권터 그라스로 대표된 기왕의 권위로부터 벗어난 순간이다. 그 순간 이야말로 모든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하나의 아버지가 되려는 성년식이다."

소설서 철북이는 법운 스님 말고도 많은 사람을 만난다. 외할머니 견성스님을 비롯한 수구암 식구들, 청도 운문사의 비구니들, 출가 전 법운 스님과 연인으로 보이는 루시아 수녀님, 법정 스님과 무불 스님, 포도밭 소녀 채송화와 아버지, 그리고 <오적>의 시인 김지하와 황세용 점원..... 외할머니는 철북이에게 "앞으로 세상을 착하게 살아갈려면 먼저 독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준다. 철북이는 운문사 어린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예불을 보며 비장함에 눈을 흘리고, 법정 스님의 여왕애기를 들으며 역사와 현실을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 김지하 시인, 황세용 점원에 대한 기억은 철북이의 지름을 만든 자양분으로 곳곳에서 호출된다.

절판된 12년만에 전면 개작
성장소설에 초점... 서사미 보강

다. 사람뿐만 아니다. 어릴 적 배고플 때 먹던 감꽃, 법운스님이 그것처럼 화두를 훌쩍 뛰어넘고 싶다면 메뚜기, 죽은 사미승이 애절한 사연을 담은 상사화, 그리고 철북이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도 있다.

이것들 모두가 '알 밖에서 알 속의 세계를 도와 곁집을 깨는 어머니'이다. 한 생명의 성장은 결코 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온 생명이 성장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인 것이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줄락'의 뜻처럼 부화하기 위해서는 알 속에서 세계가 곁집을 쪼고 알 밖에서 어머니가 곁집을 쪼아야 한다. 생명이 그렇게 안팎으로 쪼아야 죽음을 외롭지 않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넓은 세상에 나오도록 밖에서 곁집을 쪼아준 나의 어머니들이다."

절판 된 뒤 12년 만에 다시 나온 <양철북>은 이전 작품을 전면 개작한 것이다. 청소년부터 읽을 수 있는 성장소설에 초점을 맞춰 서사적 재미를 대폭 보강했다.

김주일 기자

易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기>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대한민국 역학고수 총 집결! 동양역학, 명리 풍수 관상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권위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제1기 동양역학 최고위과정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이 시대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역학 전문가,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진: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학선 유래웅 고령기문화회장, 박영창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백운암 노성순교수, 박정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풍수지리연구소장,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법교수, 서경대 김민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외

- 대 상 : 역학자, 명리학 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 (학력무관)
- 일 정 : 1학기 과정(15주), 10월 19일부터 매주 월(月) 18:40 ~ 21:30
- 수강료 : 185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275629 (예금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특 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자격증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문화관광부 등록)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선정릉역 2번 출구 (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문의 02-3443-4984 www.gfca.kr

대한민국 새로운 장례문화 화분장묘 분재공원

한국최초 특허받은 장례묘(화분장)! 특허 제10-1467668호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어렵습니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으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재화분묘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점

- ◆ 가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 17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 상초화사, 지역장례시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 현 수목장 비용 300 ~ 500만원
-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 영가등, 천도제기타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에서 아래와같이 전국 각지역총판을 모집합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자격조건 전국 사찰 및 교회 종사자분들과 개인토지보유 자분(인야/개발제한구역임야 제외) / 농지(전/답 보유하신 분) 우선권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사업주님들을 상담환영합니다.

각지역모집구역 소개 서울 | 부산(생남 흥)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일부) | 경남(생남 흥) | 제주도 | 대구 | 울산

한국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 회장: 서정용 | 대표이사(특허등록자): 김성만
◆ 본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09호 (역삼동, 성지하이츠 2차빌딩) ◆ 홈페이지 : www.화분장.kr / www.화분장.net
연락처 : 서울본사 02)555-4452 / H·P 010-8911-4452